



2020년 5월 24일(제983호) 주님 승진 대축일(봉보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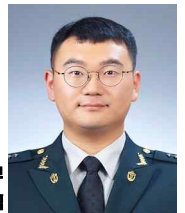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십니다. 분명히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서는 떠나가셨습니다.

함께 계시겠다고던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독서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구름에 덮이듯이,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이 덮이듯이, 성모님께서 수태고지를 받으실 때 성령에 덮이듯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보여주실 때도 구름이 덮이듯이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성령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디 떠나면 별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시어 하느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의 권능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이들이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에 대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하실 수 있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제 예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지키며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명은 십자가 없이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오르시어 고통조차 침묵하는 가장 낮은 죽음의 장소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심이 오히려 생명의 부활을 통해 하느님 오른편으로의 승천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이 믿이로서 하느님 아버지의 권능 안에 먼저 들어가십니다. 다시 오실 때, 당신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친구들 모두를 하느님의 권능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 스스로 죽음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듯이 몸을 낮추시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겸손과 사랑의 성사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십자가를 선택하여 승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겸손을 실천합니다.



윤상완(시몬) 신부
편집(32시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사도 1,1-11
- 회 담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제 2 독 시** 에페 1,17-23
- 복음 반 호 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복 음** 마태 28,16-20
- 영 성 제 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조용심 베드로



성인명: 조용심 베드로 (Peter)

신분: 복신, 순교자

활동연도: ?-1801년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조용삼 베드로는 일찍 모친을 여의고 부친 슬하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집이 가난한 데다가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하였고, 외모 또한 보잘것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비웃기만 하였다. 그는 서른살이 되도록 혼인할 여성을 구할 수조차 없었다.

그 뒤 조 베드로는 부친과 함께 여주에 사는 임희영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천주교 교리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조 베드로는 정약중 아우구스티노를 스승으로 받들고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의 스승인 정약중 아우구스티노는 모든 사람이 조 베드로를 조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심을 칭찬해 주면서 차츰 신앙의 길로 인도해 나갔다.

조 베드로가 아직 예비 신자였을 때인 1800년 4월 15일, 예수 부활 대축일을 지내려고 부친과 함께 여주 정중호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중배 마르티노, 원경도 요한 등과 함께 대축일 행사를 하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비록 예비 신자임에도 조 베드로의 용기는 체포되자 바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혹독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자, 박해자들은 화가 나서 더욱 세게 매질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박해자들은 그의 아버지를 끌어내다가 ‘네가 배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당장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혹독한 매질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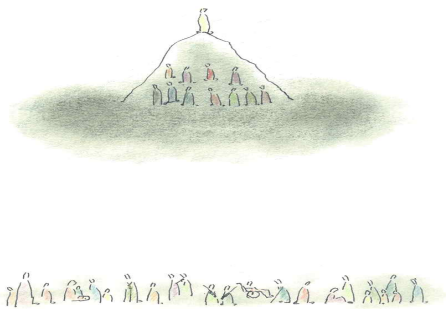
조 베드로는 마침내 굴복하여 석방되었다. 그러나 관청에서 나오다가 이 마르티노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권면하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마음을 돌이켜 다시 관청으로 들어가 신앙을 고백하였다. 이후, 조 베드로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박해자들은 전처럼 그의 마음을 꺾을 수 있으리라 믿고는 더욱 혹독한 형벌을 가하였지만, 그의 신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경기도 감영으로 끌려가 다시 여러 차례 문초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나 곳곳에서 신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무렵 조용삼은 옥중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영세하였으며, 이후로는 착한 행동과 아름다운 말로 여러 신자들을 감동시켰다. 조 베드로는 1801년 2월에 다시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큰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약해진 그의 몸은 더 이상의 형벌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다시 옥에 갇힌 지 며칠 만인 3월 27일(음력 2월 14일)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가라, 세상으로



가거라.	가서,
	배운 대로
이제,	사랑하고,
준비는	나누어라.
모두 끝났다.	
	가라.
	세상으로.

상화이야기

승천하시는 예수님



리판시오 김바리, 1571년~1573년 제작
 프레스코화 / 피르미 대성당, 이탈리아

본 주보를 받아든 신자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림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당 건물인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본 장면은 파르마에 있는 성당의 내부모습으로, 그림과 건물, 그리고 조각의 경계가 모호한 모습이다.

전체 벽면을 아우르는 주제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으로, 아래 성당 입구 쪽에는 마치 조각상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며, 그 위에 발코니 같은 모습 위에 천사와 천상의 성인들,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중앙의 스테인드글라스에는 성인과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천장의 아치 건축물 모양도 모두 그림이다. 이처럼 빛과 건축물, 그림, 조각상들의 경계를 애매 모호하게 함으로써, 천상으로의 승천이라는 주제에 신비감과 착시감을 더했다. 이를 통해, 미사와 기도 속에 신자들은 쉽게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주님 승천 대축일: 백미 박양임 신부

◆ 교구장 동정

- 2020년 입대 군중신부 훈련 위문
- 때·곳: 5월 27일(수) 11:00, 학생군사학교

◆ ‘군중의 시간’ 안내

-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